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4월 22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행19장 1-7절

설교제목 : “방언도 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6절) 본문에서 보듯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첫 번째 외적 증거, 다시 말해서 성령세례의 첫 번째 외적 증거가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방언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사용된 방언으로 **외국어로써의 방언**입니다. 6절에서 **방언**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글랏사이스’인데 ‘언어’란 뜻입니다. 이 외국어로써의 방언의 또 다른 예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강림시 사람들에게 임했던 방언입니다.(행2:4) 두 번째 종류의 방언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언어로써의 방언**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열렬한 반응을 보였던 방언인데, 이 방언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닌 천상의 말을 가리킵니다. 천상의 언어로써의 방언은 반드시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두 종류의 방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므로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오순절 성령강림의 신학적 이해가 필요한데, 한마디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바벨탑 사건의 역전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한마디로 교만한 인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11:4)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오만함을 벌하시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창11:7-8) 결국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 서로 이해하거나 어울리는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땅에 흩어져 여러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혼잡하여 서로 소통할 수 없었던 바벨탑의 저주가 뒤엎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난 곳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므로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성령 안에서 민족과 언어, 문화적 방벽을 넘어 진정한 소통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서로의 장벽이 무너지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령은 소통의 영이며, 성령의 사람은 소통의 사람입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절대 권력을 휘두를 때에 교회 권위에 따르지 않는 성도에 대하여 출교령(出敎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출교란 말이 영어로는 “**Excommunication**”이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인즉 **소통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출교는 공동체 안의 누구와도 소통과 대화를 금지시키는 벌이었습니다. 이처럼 소통이 안되는 것처럼 큰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가 소통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대화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1:18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대화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들의 죄와 허물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일종의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소통하기 위해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령이 임하면 이웃과도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웃과의 소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의 기록입니다. 성령 강림의 통해 무슨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소유물을 나눠주는 운동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 흐르듯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물

질을 서로 소통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는 소통이 이루어집니다.(행2:44-47) 결국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져 나아갔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 참된 선교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초대 교회처럼 이웃과 참된 소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복음은 언어로 전달되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언어와 함께 행동으로 전달되어집니다. 팀 켈러 목사가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자기 공동체와 그 구성원만 챙긴다는 느낌을 주면, 제 아무리 멋진 말씀을 전하다 해도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나 교인들이 깜짝 놀랄 만큼 자신을 희생해서 긍휼을 베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걸 보인다면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에 더 마음을 열게 마련이다.’ ‘그저 선교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야 한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이웃과 참된 소통이 일어날 때, 확실하게 선교의 기초가 닦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과 소통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방언의 역사인 것입니다. 결국 방언 은사란 단지 외국어를 하거나, 천상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방언의 은사는 서로의 벽을 넘어 소통하여, 하나됨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진정한 표징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참된 방언의 사람 즉 소통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어보기

- 1)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2) 오순절 성령강림의 신학적 의의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성령이 임하시므로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대화가 이루어지 않고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